

10경 빛나는 다도해 해상공원의 진주



쪽빛 바다와 다도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관매도 10경 중 제5경인 하늘다리.

‘블루오션’ 다도해 <15>

3부 전남도 선정 ‘가고 싶은 섬’

⑥ 진도 관매도

세 마을 148가구 239명 거주
백사장·소나무숲 등 절경
세월호 참사 전 年 13만여명 찾아

2019년까지 40억 들여 5개 사업
100만명 찾는 섬 만들기 박차

진도의 관매도는 조도 군도의 중심섬인 하조도(下島)에서 남쪽으로 2.3km 지점에 있다. 독거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거군도에 포함되며, 면적은 5.73km, 해안선 길이는 17.0km이다. 인접한 각홀도·항도·방아섬(방아섬)은 썰물 때 관매도에 연결된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내방객은 급감했으나 지난 2013년 13만1032명이 찾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다. 진도항에서 하조도 장유항을 거쳐 관매도에 도착하는 선박이 하루 2차례 있고, 1시간30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진도군은 2019년까지 관매도를 대상으로 탐방로 등 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을 벌여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도해 절경 ‘관매 10경’…숨겨진 자원들=관매도 안에는 관매리·관호리·장산평의 세 마을이 있다. 현재 148가구 239명이 살고 있다. 거주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이며, 여성과 고령자의 비중이 크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수령 약 300년의 천연기념물 제212호 관매도 후박나무(2주)와 면적만 6만3450㎡에 이르는 제505호 동거차도 페페라이트(응암과 퇴적물의 불규칙한 덩어리들이 함께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 있다. 지방지정문화재로는 무형문화제 제40호 조도땃배노래가 전해진다. 후박나무를 성황으로 모시고 당제를 지내 왔으나 1976년 당집을 헐어낸 이후 당제를 지내는 풍습은 사라졌다.

지질은 산성화산암류와 능주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매산(219m)을 최고봉으로 섬의 대부분이 산지로 돼 있는데, 북서쪽 해안을 제외하면 해안의 대부분이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남쪽에는 절애(絶崖)가 잘 발달해 있고, 암벽에는 해식동이 많다. 북서쪽으로는 모래사장이 3km 정도 펼쳐져 있고 모래사장 뒤로는 작은 평야가 나타난다.

원추리·잡나리·바위재송화·해국 등이 자생하며, 어류로는 멸치·돔·아나고·농어·우럭 등이 잘 잡힌다. 주민들은 전복·백합·돛·미역 등을 양식하고 있다.

비교적 작은 섬인 관매도는 ‘10경’으로 유명하다. 동서로 3km에 이르는 백사장과 인근 3만평의 소나무 숲으로 유명한 1경 관매도 해수욕장에서, 제2경 방아섬(남근바위), 제3경 돌모와 공돌, 제4경 할미중드랭이굴, 제5경 하늘다리, 제6경 서들바굴폭포, 제7경 다리여(사리) 때만 수면 위로 드러남, 제8경 하늘담(벼락바위) 등이 있다. 당초 ‘8경’이었으나 최근 제9경 독립문, 제10경 구성바(30m의 암벽)가 추가됐다.

◇민박 32개소가 유일 숙박시설, 접근성 취약=관매도를 찾는 내방객은 32곳의 민박(183실)과 3곳의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그만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관매초교와 조도중 관매분교가 있었지만 2012년과 2009년 학생이 없어 각각 폐교조치됐다. 관광안내소, 보건진료소, 파출소 출장소,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이 있다. 외지인과 연계되는 항구는 지방어항인 관매항과 소규모 어항 등 2곳이 있으나 진도항으로부터 1시간이 소요되는 관매도의 접근성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년회 가입자가 126명에 달해 전체 거주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정년회나 부녀회의 회원은 각각 12명과 18명으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가

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하지만 관매도가 가진 자원의 풍부함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진도군의 입장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하드웨어(시설)만이 아니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역리더를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섬으로=진도군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설물 보수(5억원), 명품경관 조성(5억원), 힐링로드(2억원), 폐교 캠프촌 조성(10억9600만원) 등 하드웨어 사업에 22억9600만원을, 주민 역량 강화(4억8000만원), 홍보 마케팅(5억3000만원), 관광콘텐츠 개발(6억9400만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17억4000만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문학·음악·요리·사진·미술 등 5개 분야에 작가와 함께 하는 섬 여행, 세프와 함께 하는 식도락 여행, 섬마을 갤러리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또 관매도에 대한 인지도 확산, 지역 명소화, 전국 명소화 등의 연차별 홍보 전략 방안도 내놓기도 했다.

생태탐방로를 연계한 관광거점을 조성해 외지인들의 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주민 및 외지인들의 재방문을 유도한 뒤 쾌적한 공기와 천혜의 자연을 유지·보존해 머물고 싶은 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관매도 돌담길.



관매도 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돼 있는 소나무숲. 면적이 3만 평에 달한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차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홍나무외, 스텔라외(이탈리아), 역안외(이탈리아)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